

제7차 환경교육과정 특성에 대한 미학적 고찰

이민부* · 박승규** · 장의선***

Characteristics in Environmental Education Contents of the 7th National Curriculum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Focusing on Esthetic Consideration

Min-Boo Lee*, Seung-Kyu Park** and Eui-Sun Jang***

요약 : 제 7차 환경과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균형있는 환경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관, 지식, 기능, 태도, 참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내용영역에서도 '인간과 환경', '환경문제', '환경보전'이라는 세 영역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다루면서 심화·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이들 세 영역 이외에 '환경과 사회'의 영역 등을 추가하여 학습자들이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에서 벗어나 인문·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우리의 삶과 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식하고, 환경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 7차 환경과 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내용들이 환경파괴나 환경오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 이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적 감수성이나 환경에 대한 아름다움을 통한 환경교육의 가능성이 그만큼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관을 매개로 한 미학적인 관점에서 제 7차 학교급별 환경교육의 특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주요어 : 7차 환경과 교육과정, 학습자 능력, 학습자 활동, 학습자의 일상생활지역, 미학적 감수성.

Abstract : The 7th national curriculum for environmental education in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focuses on consideration of learner's ability, learner's activities, and learner's region of everyday life. The contents of environmental education are scattered subjects in elementary schools and an independent subject as 'Environment' in middle school and 'Environment and Ecology' in high school of the secondary school. With upgrading of schools, the aims and activities of environmental learning move up from value-centered, through activity-oriented and to cognition-centered.

The esthetic considerations, such as landscape sensitivity, are required for better environmental education curriculum focusing on value and attitudes in everyday life space or region.

Key words : the 7th national curriculum in environmental education, learner's ability, learner's activities, learner's region of everyday life, esthetic consideration.

* 한국교육원대학교 교수(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춘천교육대학교 교수(Professor,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대구서부중학교 교사(Teacher, Deagu Seobu Middle School)

I. 서론

인간은 사회적·자연적 존재인 동시에 환경적 존재이다. 인간은 자연적 및 인문적 요소들로 구성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인간은 고립된 존재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일정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자연과의 부단한 상호작용 속에서 삶을 영위한다. 삶의 터전으로서의 환경의 질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자연과의 상호작용이 균형을 잃지 않았을 때 유지될 수 있다.

우리의 삶과 환경과의 균형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환경을 바라보는 인간들의 정신구조적 측면이다. 왜냐하면 환경에 대한 접근은 단기적방적, 문제해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예방적이며, 본질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학적, 제도적 접근보다 환경에 대한 의식 변화를 위한 환경교육적, 심층생태학(deep ecology)적인 관점에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¹⁾.

결국 오늘날의 환경의 심각성이 인간들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인간들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환경교육적인 관점에서 21세기의 인간상은 '환경적 소양(envIRONMENTAL literacy)'을 지닌 인간인 것이다. 환경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책임감 있는 환경행동의 형성'으로 본다면, '환경적 소양'은 책임감 있는 환경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개인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 혹은 가치 및 태도를 의미한다²⁾. 나아가 환경적 소양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 환경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갖추어야 할 가치 덕목이외에 환경에 대한 미학적인 인식까지도 포함되어야 한다³⁾.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주로 환경과피나 오염 및 공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측면에 많은 비중을 둔 반면에, 환경을 미학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환경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환경에 대해 건전하지 못한 사고와 태도 및 가치는 환경과 관련된 지식의 부족에서 오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인간들의 감수성이나 심미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다는 지적⁴⁾에서 알 수 있듯이, 미학적 접근은 환경교육 논의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나아가 환경에 대한 올바른 가치 및 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환경미학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학교급별 환경교육의 교육 과정 특성⁵⁾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자한다.

II. 제 7차 환경과 교육과정의 학교급별 특성

학교 환경교육의 교수방법으로는 첫째, 독립교과로 접근하는 방법, 둘째, 전 교과에 걸쳐서 분산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셋째, 질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제 6차 초등학교 환경과 교육과정에서는 여러 교과목에 걸쳐서 행해지는 분산적 접근방법으로, 중·고등학교 환경과 교육과정에서는 중학환경과 고등학교의 환경과학과 같은 독립교과가 최초로 신설되었으나 학교별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과와 과학과 등에서 여전히 분산적인 방법도 같이 이루어졌다. 제 7차 환경과 교육과정의 경우에도 이러한 접근법에는 커다란 차이가 없이 기본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분산적 접근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의 환경교육의 특성과 독립교과로서의 환경교육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환경교육의 특성을 목표 및 내용요소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⁶⁾.

1.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특성

1) 제 7차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목표

초등학교 환경교육은 분산적 접근을 통해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교육과정의 공식적 문서에는 환경교육의 목표가 별도로 진술되어 있지 않다. 초등학교의 경우에 환경교육과 가장 많은 관련을 맺고 있는 교과목들은 대략 '슬기로운 생활', '사회과', 그리고 '과학과' 이므로 이들 교과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들을 분석하여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목표들을 유추해볼 수 있다⁷⁾.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자신과 주위의 환경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궁리하며, 스스로 해결하는 태도를 가진다", "동물과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살펴보고,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 등의 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므로 환경과 관련된 인지적인 측면의 학습보다는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친숙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는 환경교육의 가치, 태도 영역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과’에서는 “인간과 자연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탐구 능력, 의사결정능력 및 사회 참여 능력”,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중요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과에서의 환경교육의 목표는 환경을 단지 자연적인 측면에 국한하지 않고, 하나의 사회현상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들의 삶과의 관련성을 생각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적 기능의 학습과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의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과학과’에서는 “자연현상과 과학학습에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실생활의 문제를 과학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기르고 “과학이 기술의 발달과 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과학과의 목표는 환경을 다양한 자연현상으로 인식하면서 자연현상이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어떠한 관련이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과학적 소양의 육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나아가 ‘슬기로운 생활’, 이나 ‘사회과’의 경우처럼 ‘과학과’의 경우에도 가치 및 태도의 영역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목표는 환경인식, 가치관, 태도, 참여 등의 인지적인 측면보다는 정의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목표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⁸⁾.

“초등학교의 환경교육은 환경과 관련한 경험을 통한 감수성 및 흥미와 호기심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적인 능력을 기르며,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기르는데 중점을 둔다.”

2) 제 7차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내용선정 및 배열

1991년에 한국교육개발원(KEDI)에서 개발한 환경교육의 영역과 내용을 제시한 연구결과에서 보면 환경교육의 영역을 9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마다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⁹⁾. 그것을 보면, ① 자연환경(자연환경요소, 자연생태계, 지리적 환경), ② 인공환경(주거와 취락, 교통·통신시설, 휴양·오락

시설, 토지이용), ③ 인구(인구의 성장과 구조, 인구의 이동과 분포, 인구문제와 대책), ④ 산업화와 도시화(산업의 발달, 산업화의 문제, 도시화, 도시화의 문제), ⑤ 자원(개념과 종류, 자원문제, 산업화와 자원고갈), ⑥ 환경오염(수질오염, 토양오염, 소음·진동, 대기오염, 식품오염, 악취, 폐기물, 농약피해, 방사능 오염), ⑦ 환경보전(자연환경보전, 인공환경보전, 환경보전의 생활화, 환경정화), ⑧ 환경대책(지역수준의 환경문제와 대책, 국가수준의 환경문제와 대책, 국제수준의 환경문제와 대책), ⑨ 환경위생(자연환경과 건강, 인공환경과 건강, 환경오염과 질병)이다. 최근에 들어, 제시한 환경교육의 영역들이 환경윤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ESSD), 건전한 소비생활, 식품문제, 교통문제, 약물문제, 환경라운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교육의 내용영역들은 환경교육의 내용 선정을 위한 준거로 이용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초등학교 환경교육에서의 스킵프는 정의적인 영역을 강조하는 초등학교의 환경교육 목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한다거나 환경문제 해결의 필요성 및 보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가치주입을 중시하는 환경교육이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환경교육의 내용영역들 가운데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환경과 관련된 가치 및 태도를 함양할 수 있는 “환경문제(환경오염)”나 “환경보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스킵프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위에서 제시한 내용영역들과는 약간의 거리를 보여주고 있지만 보다 통합된 형태로서의 우리들의 삶과 환경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선정된 내용들이다(표 1 참조).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로 물이나 공기 등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학습하도록 함으로써 생활 속에서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령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물 아껴 쓰기’, ‘물건 정리하기’ 등을, ‘바른생활’에서는 ‘쓰레기 바로 처리하기’, ‘환경을 깨끗이 하기’ 등을 주제 및 제재명으로 사용하면서 생활 속에서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학’에서는 ‘환경오염과 그로 인해 생기는 피해들을 수집 및 정리’

표 1. 초등학교 환경교육 관련 내용체계

영역		내용
인간과 환경	우리 주위의 환경	· 생명의 소중함 · 우리를 둘러싼 환경
	환경의 변화	· 옛날과 달라진 환경 · 환경의 이용
환경 문제	깨끗한 물	· 물의 소중함 · 물을 깨끗이 하기 위한 노력
	맑은 공기	· 공기의 소중함 · 공기를 깨끗이 하기 위한 노력
	쓰레기 문제	· 늘어나는 쓰레기 · 흙의 소중함
환경보전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환경 보전 활동	· 우리가 실천해야 할 환경 보전 활동

하게 하여 환경오염의 다양한 유형들을 살펴보고, 그 심각성을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길러주고자 한다.

‘환경보전’과 관련된 내용영역을 보면, ‘사회’에서는 ‘살기 좋은 고향을 만들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 ‘주민 자치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문제와 해결’,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지구촌의 문제와 우리 나라’ 등의 제재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도덕’에서는 ‘자연보전과 애호’, ‘환경을 보호하기’ 등의 제재들을, ‘실과’에서는 ‘집안의 쓰레기를 분리하여 처리하기’, ‘세제, 옷, 물 등의 자원을 절약’하고, ‘주변의 생활용품을 재활용하기’ 등의 제재를 제시함으로써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환경보전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간과 환경’과 관련된 내용영역을 보면, ‘슬기로운 생활’에서는 ‘주위의 동식물을 찾아보기’, ‘사회’에서는 ‘고장의 모습과 생활’,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여러 지역의 생활’ 등의 단원을 통해, ‘과학’에서는 ‘어항에 생물 기르기’, ‘환경과 생물’, ‘쾌적한 환경’ 등의 단원을 통해, ‘실과’에서는 ‘집안 환경 가꾸기’ 등의 단원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환경과의 밀접한 상호관련성을 제시해주고 있다.

이러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내용영역들은 대체로 학년간의 위계를 고려하면서 내용들이 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친숙한 것에서 낯설은 것으로라는, Dewey가 제시하는

학습자들의 심리상태를 중심으로 한 내용구성원리가 초등학교 환경관련 내용영역의 배열원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Dewey에게 있어서 학습자들에 대한 교육은 다양한 환경문제의 발생원인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는 내용요소들 보다는 학습자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한 내용구성이어야 하며, 그때 비로소 환경교육은 학습자들에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리에 근거하여 저학년에서는 주로 환경요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자연의 사랑과 동식물 애호정신의 함양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고학년으로 갈수록 인간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의 발생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내용요소들을 배열하고 있다. 물론 고학년의 경우에도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과 비교한다면, 정의적인 측면과 보다 깊은 관련을 맺고 있지만 저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중학교에서 ‘환경’ 과목을 학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연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학습자들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는 초등학교 환경교육 내용의 선정은 중·고등학교와 달리 인지적인 측면에 대한 학습보다는 정의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형화된 명제나 지식체계를 통해서 환경보전의 중요성이나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이식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환경교육이 아니라 생생한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환경교육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의 선정 및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2. 제 7차 중학교 환경교육의 특성

1981년에 고시된 4차 교육 과정 총론편(교육 목표와 편제)의 운영 지침은 “환경 교육 등은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선언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며, 각론에서는 관련 교과와 목표와 내용에서 환경 교육 관련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제 4차 교육과정 시기부터 초·중등학교에서 환경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87년에 고시된 제 5차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과정 구성의 방향에서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라는 규정과 “인간을 존중하고 자연을 아끼며”라는 규정을 두어 환경 교육에의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 과정의 지침에 따라 이 시기부터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에서는 독립교과로서의 환경교육이라기보다는 각 교과 속에 환경관련 내용이 삽입되어 가르쳐지는 이른바 분산적 접근에 의한 환경교육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2년에 고시된 제 6차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환경교육은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된다. 초등학교에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학교 재량시간 및 특별활동, 그리고 학교급별 특별시간을 이용한 환경교육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환경』, 『환경과학』이라는 독립교과목이 신설되면서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독립교과로서의 환경과는 중·고등학교의 경우에 이번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그대로 유지됨으로써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되고 있는 중학교 ‘환경’ 과목의 목표 및 내용특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제 7차 중학교 환경교육의 목표

중학교 ‘환경’ 과목은 환경 문제와 환경 보전에 대한 지식, 기능, 태도 및 참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선택 교과이다. ‘환경’ 과목의 목표와 내용은 초등학교 환경 교육과 고등학교 일반 선택 교과인 ‘생태와 환경’ 과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중학교에서의 환경 교육과 관련하여 교과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이 과목은 생태계에 대한 자연 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환경 보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식 주입보다는 가치 탐구 및 태도 변화에 비중을 두어 자연 생태계, 과학 기술,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여 다루는 과목이다.

환경 문제와 환경 보전에 관한 주제가 자연 현상과 사회 현상 모두를 포함하기 때문에 중학교 ‘환경’에서는 인문, 사회 및 자연 과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통합적으로 다루게 된다. 학생들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고, 지역 사회에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가 바로 환경 교육 내용의 중심이 될 수 있다. 학생들은 실제 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 과학 기술이 모든 자연을 지배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인간은 단지 생태계의 일부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지양하고, 생태-인간주의적 세계관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습득하여 환경 문제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바람직한 환경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환경 보전에 관한 바람직한 윤리 의식은 실생활에서 나를 둘러싼 주위 환경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볼 때 이타적인 행동으로 표현된다. 결국 세계적인 환경 문제의 해결과 환경을 보전하려는 태도는 학생들의 현실 생활에서의 환경친화적인 행동에서 출발해야 하며, 과목의 성격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태도와 행동양식을 기르고 익히도록 하는데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교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식 목표, 지적 기능 목표, 태도 목표, 가치 목표, 참여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및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환경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한다.

둘째, 환경과 환경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에 대한 감수성과 환경문제 해결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을 기른다.

셋째, 환경 보전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환경친화적인 태도를 기르고,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이번 제 7차 중학교 환경교육과정에서도 지난 6차 교육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지식, 기능, 태도, 참여, 가치 등의 5개항을 중심으로 한 교육목표를 구성하

고 있어 커다란 틀에서 보았을 때 그 지향점은 6차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2) 제 7차 중학교 환경교육의 내용선정 및 배열

중학교 환경 교육 내용 구성의 기본 방향은 첫째, 인간과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고 둘째, 환경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탐구하며 셋째, 하나 뿐인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본 방향을 전제로 한 중학교 '환경'의 내용 구성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 교육 목표가 균형적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인지적, 정의적 영역의 목표를 각 영역별로 균형 있게 학습하도록 내용을 선정·조직하였다. 둘째, 환경 교육은 학생들의 실생활에 바탕을 둔 교육이므로 학생 자신이 속한 가정, 학교, 지역 사회가 당면한 문제와 실천이 가능한 해결 방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였다. 셋째, 환경 교과와 간학문적, 다학문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 및 사회의 제반 현상에서 내용을 통합적으로 선정하였으며, 최근에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주제를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환경 문제의 본질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인문·사회 과학적 접근에 비중을 두었다. 넷째, 제 6차 교육 과정의 '환경' 교과는 22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내용이 많은 것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으므로 과다한 사례 중심 학습 내용을 축소하여 17개의 소주제로 구성함으로써 과다한 내용을 축소하고 내용의 수준과 범위도 조절하였다. 다섯째,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환경 관련 교육 내용은 독립된 '환경' 교과 외에도, 사회, 과학, 도덕 등 여러 교과에 분산적으로 수용되어 있으므로, '환경'의 교육 내용은 타 교과와의 관련성을 고려하되, 특히 환경 윤리 의식과 환경 보전 및 환경 대책을 강조하여 환경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 변화 및 실천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다.

이 같은 중학교 '환경' 과목의 내용선정 방식은 초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을 위해 선정되었던 내용영역인 '인간과 환경', '환경문제', '환경보전' 등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심화 확대시키고 있다. 학교급간의 환경교육 내용의 계열성과 계속성의 원리를 유지하기 위한 내용구성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번 제 7차 중학교 '환경' 과

목의 내용구성에 있어 주목해야 할 점은 제 6차 환경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과다한 학습 내용을 축소하고, 학습해야 할 수준을 활동 중심의 내용으로 쉽게 조정하되 인문·사회 과학적 접근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제 7차 중학교 '환경' 과목의 내용선정을 바탕으로 한 조직은 우선적으로 초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내용과 인지적 영역 중심의 고등학교 환경교육과의 계열성과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용을 배열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에서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경험에 의존하던 환경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면서도 계열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환경교육에 대한 개념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조직방식(sequence)은 학생 주변에서 시작하여 가정, 학교, 지역 사회로, 나아가서는 국가 및 지구적 차원에서의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환경확대법의 원리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 '환경' 과목에 대한 학습에 있어서도 초등학교에 비해 인지적인 측면에 대한 교육이 중요할지라도 환경에 대한 가치 및 태도영역에 대한 비중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학습자들의 삶 가까운 곳에서 접하게 되는 환경문제들을 통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거나 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제시한 제 7차 중학교 '환경' 과목의 내용 구성 및 조직방법을 바탕으로 한 환경 교과의 내용 체계는 크게 '인간과 환경', '환경문제와 그 대책', '환경보전' 등 3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7차 교육 과정의 내용 체계상의 특징은 제 6차 교육 과정의 '환경과 우리' 단원을 '인간과 환경' 단원으로 바꾸어 환경에 대한 인간의 영향과 역할에 비중을 두었고, 환경 문제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환경', '지향해야 할 환경'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표 2 참조).

3. 제 7차 고등학교 환경교육의 특성

고등학교에 '환경' 교과가 도입된 것은 제 6차 교육과정부터였다. 인간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의 질은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며, 학교교육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야 할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표 2. 제 7차 중학교 환경과목('환경')의 내용체계표

영역		내용
인간과 환경	인간과 환경	· 환경이란 무엇인가 · 인간 활동과 환경 변화
	환경의 변화	·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 · 환경 보전과 개발
환경 문제와 그 대책	자원은 생활의 원동력	· 인간 생활과 자원 · 한정된 자원과 늘어나는 자원의 사용량
	지켜야 할 생활 환경	· 맑고 상쾌한 공기 · 깨끗하고 풍부한 물 · 다시 사용하는 쓰레기
	지구의 환경 문제	· 더워지는 지구 · 줄어드는 삼림과 늘어나는 사막 지역 · 사라지는 생물종
환경 보전	환경 보전을 위해 실천해야 할 행동	· 우리 집에서 · 우리 학교에서 · 우리 동네에서
	쾌적한 환경 만들기	· 쾌적한 환경과 삶의 질 · 지구를 살리자

제 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환경과가 독립된 교과로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고등학교에서도 '환경과학' 이라는 과목이 신설되면서 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실시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 교과목이 고등학교에서 독립교과목으로 가르쳐지기 이전에 환경교육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며, 다만 분산적 접근을 통해 여러 교과에서 환경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제 6차 교육과정의 경우 '환경과학' 과목이 교양선택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학습기회가 적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 제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교양선택과목에서 일반선택과목으로 편제상에서의 성격을 바꿈으로써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높여주고자 하였다. 교과목도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환경과학' 이라고 하는 다소 학문적 성격을 내포하는 것에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생태와 환경' 이라 교과목으로 과목명을 개정하면서 학문적 성격을 줄이고 가치태도와 관련된 영역을 보다 많이 할애함으로써 친환경적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 7차 고등학교 '생태와 환경' 과목의 목표 및 내용특성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 보기로 한다.

1) 제 7차 고등학교 환경교육의 목표

제 7차 고등학교 '생태와 환경' 과목은 앞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제 6차 교육과정에서의 '환경과학' 과목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적 성격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생태와 환경' 과목의 성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제 7차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생태와 환경' 과목의 성격을 보면 다음과 같다(교육부, 1998).

'생태와 환경'은 환경과 환경문제에 대하여 자연과학적인 방법과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통합적 교양과목이다.

'생태와 환경'은 여러 가지 학문으로부터 얻은 지식을 환경문제의 해결에 응용하는 종합과학으로서 우리의 주변환경을 이루는 생태계에 대한 올바른 자연 과학적 지식과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또 실생활에서 학생들이 직접 환경문제와 부딪침으로써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환경보전을 위한 사고로 전화될 수 있도록 지식위주의 학습 외에 현장견학, 실험실습, 조사, 자연보전활동에의 참여 등과 같은 활동에 비중을 둔다.

‘생태와 환경’은 중학교 ‘환경’ 과목과 연계하여 지구 생태계를 이루는 환경의 자연과학적 이론을 넓히고, 환경문제를 인식하며 건전한 생태 중심적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인문·사회과학적 지식을 고르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인간의 삶의 터전인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적극참여하고 쾌적한 환경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지닌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및 태도를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 같은 ‘생태와 환경’ 과목의 성격은 종합과학으로서의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문제의 이해와 해결에 도움을 주며, 다양한 활동을 강화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⁰⁾ 이 같은 ‘생태와 환경’ 과목의 성격을 바탕으로 한 ‘생태와 환경’ 과목의 목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환경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그 문제점에 대해 감수성을 가지며 환경보전,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기른다.

첫째, 생태계와 환경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및 환경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능을 습득하고, 이를 환경의 보전과 환경문제 해결에 응용한다.

둘째, 생태계와 환경에 대한 올바른 태도와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바람직한 환경관을 형성한다.

셋째,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적극 참여하려는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책

임감과 열의를 가진다.

이 같은 제 7차 ‘생태와 환경’ 과목의 목표는,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태도와 가치관, 환경관이 비교적 많이 강조되었던 것에 비해, 가치관, 지식, 기능, 태도, 가치, 참여 목표까지 강조하고 있어 환경교육의 다양한 측면을 보다 많이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¹⁾

2) 제 7차 고등학교 환경교육의 내용선정 및 배열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생태와 환경’ 과목의 내용영역을 살펴보면 ‘인간과 환경’, ‘생태계와 환경’, ‘환경오염’, ‘지구적 환경문제와 대응’, ‘환경과 사회’, ‘환경보전’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들 내용선정 영역들을 살펴보면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의 주된 내용영역으로 다루어졌던 ‘인간과 환경’, ‘환경문제(오염)’, ‘환경보전’의 영역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유지되면서 그 이외에 ‘생태계와 환경’, ‘지구적 환경문제와 대응’, ‘환경과 사회’의 영역이 추가되었다(표 3 참조).

학교급간의 계열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과는 달리 좀더 거시적이고 다양한 측면과 환경을 관련지워 학습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가령 ‘환경과 사회’의 영역을 설정하여 다양한 현대의 환경론과 이데올로기들에 대해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환경에 대한 이해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비교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표 3. 제 7차 고등학교 환경과목(‘생태와 환경’)의 내용체계

영역	내용
인간과 환경	· 자연환경과 인간 · 환경문제의 발생
생태계와 환경	· 생태계의 기본원리 · 생태계의 평형
환경오염	· 대기오염 · 토양오염과 유실 · 수질오염 · 폐기물 오염 및 기타
지구적 환경문제와 대응	· 지구온난화 · 오존층 파괴 · 산성비 · 방사능 오염
환경과 사회	· 환경사상과 환경윤리 · 환경과 경제 · 환경정책
환경보전	· 자원과 에너지 · 환경보호운동 · 생물다양성 및 환경보전 · 지구환경위기의 극복

것이다. 또한 환경정책과 환경과 경제 등의 내용요소들을 강조하고 학습자들이 실제의 사회와 환경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여 환경을 단지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이해에서 벗어나 인문·사회과학적인 영역과의 연결을 통해 보다 폭넓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환경교육과정 내용 특성에 대한 환경미학적 고찰

지금까지 제 7차 환경과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급별 내용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급별 환경교육의 내용특성과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지식-가치의 문제이다¹²⁾.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차 가치중심의 환경교육에서 지식중심의 환경교육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볼 수 있지만, 지식-가치와 관련된 학교의 환경교육 과정 전체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특히 현재의 학교 환경교육이 환경 오염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식(인지적 측면)-가치(정의적 측면)와 관련된 논의들 역시 환경오염이나 환경과피와 관련된 논의들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들어 환경교육에서의 환경적 감수성이나 환경에 대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¹³⁾ 현재의 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왜냐하면 정의적 측면과 관련된 제 7차 교육과정에서의 내용들 역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인 '미적 장(aesthetic field)'¹⁴⁾으로서의 환경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이나 심미안을 교육하는데 많은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적 장으로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통한 환경교육은 단지 자연환경이 갖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을 통해 자연을 예찬하면서 환경을 보호할 줄 아는 인간의 육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적 장으로서의 환경은 문화적 환경까지도 포함한다. 즉, 우리의 일상적 삶이 영위되는 사회·문화적이고 지리적인 환경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다¹⁵⁾. 그것은 '미적 장'으로서의 환경이 곧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의 장이기 때문이다. 따

라서 인간과 유리된 환경이 존재할 수 없으며, 환경에 대한 인간들의 미적 경험은 관조적인 경험이 아니라 '참여'적인 경험이 되는 것이다¹⁶⁾.

환경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는 암묵적으로 우리와 우리의 환경 사이에 어떤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같은 신념은 인간과 환경간의 분리적인 의미를 내포하므로 환경에 대한 의미를 현상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때 환경미학적인 측면에서 미적 장으로서의 환경은 우리와 환경간의 분리의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환경 속에서의 삶의 영역에서 '참여'의 의미를 강조하여 통일체로서의 우리와 우리의 환경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의 자연적 주체로서 설 수 있는 인간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¹⁷⁾.

미적 장으로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환경미학적인 사고는 인간과 자연의 연속성을 강조하여 문화는 자연을 기반으로 하면서 동시에 문화도 자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는 '문화적 자연(cultural nature)'을 강조한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용해되어 있는 문화적 자연은 바로 '환경'이며, 이 같은 환경이 갖는 아름다움의 차원은 단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인간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총체적인 상황은 우리들의 삶과 분리되지 않은 환경의 미를 보장해주는 전제조건인 셈이다. 따라서 환경미학적인 측면에서의 환경교육은 환경에 대한 인식을 우리들의 일상적인 경험의 영역에서 존재 가치를 찾도록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Dewey는 경험을 유기체로서의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상호작용에서 인간의 적응과정으로 보고 산만하고 분산되어 있는 인간들의 파편화된 경험과 달리 완성적인 '하나의 경험(an experience)'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의 경험인 한 모든 경험은 미적인 특질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¹⁸⁾. 또한 미적 경험은 인간의 사유나 욕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 경험 혹은 윤리적 경험과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통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Dewey에게 있어 인간들의 미적 경험은 우리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상호관련 속에서 인간들이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경험인

것이다.

이러한 Dewey의 경험에 대한 인식과 환경미학적인 사고는 환경에 대한 경험이 누군가에 의해 주어진 것, 혹은 단지 바라봄으로써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환경을 파괴하거나 오염시키는 사람은 따로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환경의 주체이므로 결국 우리가 환경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며, 따라서 자신들의 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환경적 감수성이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은 결국 환경교육의 주제 혹은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인간들의 환경적 감수성이 환경경험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때 환경경험은 인간들의 신체를 매개로 하면서 좀 더 포괄적으로 삶을 구성하는 요인들을 아우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같은 환경경험을 보다 구체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 '경관(landscape)'인 것이다.¹⁹⁾ 한 장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 경관을 통한 환경경험은 개인에 대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의미세계들을 알려줄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다.

환경에 대한 미학적인 접근은 자연적인 배경과 사회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시각적이고 가시적인 경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경관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각 지역에 대한 특정한 가치관의 보고로서, 마치 한 벌의 옷과 같이 그것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대상이다. 따라서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은 인간들에 의해 구성된, 혹은 구성되고 있는 경관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 같은 배경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것이다.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사회문화적이고 자연적인 전통에 근거하고 있는 경관에 대한 이해는 결국 지리학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인간들의 삶이 어우러진 경관은 따라서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인간들의 삶과 분리되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특성에 대한 이해는 경관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되는 것이며, 이때 각각의 지역은 하나의 틀로서 접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삶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나타나는 '상황'에 근거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

고 바로 이 같은 상황을 증시하는 사고는 미적 장으로서의 환경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진다. 결국 환경미학적인 사고는 경관미학적인 사고의 확대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경관미학적인 사고는 지리교육 뿐만 아니라 환경교육에 대해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이다.

IV. 결 론

미래사회는 농업혁명이나 도시혁명을 통해 이루어진 삶의 질 향상을 넘어 '환경혁명'을 통한 인간들의 삶의 질 향상이 피할 수 없는 화두가 되고 있다. 그만큼 환경은 인간들의 모든 삶의 영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어 학교 환경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점에서의 환경교육은 처방적이고, 문제해결적인 환경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제 7차 환경과 교육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이 환경과 관련된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있는 환경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치관, 지식, 기능, 태도, 참여 등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 걸친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내용영역에서도 '인간과 환경', '환경문제', '환경보전'이라는 세 영역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계속적으로 다루면서 내용을 심화·확대시키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이들 세 영역 이외에 '환경과 사회'의 영역 등을 추가하여 학습자들이 단지 자연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이해가 아니라, 인문·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을 통해 우리의 삶과 환경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인식하고, 환경문제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내용배열은 학습자들의 생활세계를 중심으로 하여 구체적인 대상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친숙한 것에서 낯설은 것으로 이루어져 학습자들로 하여금 명제적이고 개념적인 수준에서의 환경교육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삶에 근거한, 그들의 삶을 통한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환경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의 경우는 간학문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한 통합적인 문

제 중심의 내용구성방식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제 7차 환경과 교육과정에서도 학습자들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과의 관련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내용들이 환경과이나 환경 오염,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 등과 관련된 것들이어서 학습자들로 하여금 환경적 감수성이나 환경에 대한 아름다움을 통한 환경교육의 가능성이 그만큼 제한되어 있다. 후자의 교육은 인간의 삶 속에서 환경이 갖는 아름다움은 자연적인 측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전통까지도 포함하고, 경관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움을 보다 포괄적으로 인식하여, 환경이 갖는 아름다움의 인식에 대한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된다. 나아가 환경교육은 학습자들의 신체를 벗어나 의도된 외적 경험을 통해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의 신체를 매개로 한 주체적 환경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환경의 아름다움에 기초한 환경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아름다움을 인식할 수 있는 매개로서의 '경관'의 중요성은 지리학이나 지리교육의 중요성이 환경교육에 있어서 그 초기의 개념에서처럼²⁰⁾ 필연적인 지위임을 말해주고 있다.

註

- 1) Devall, L. & Sessions, G., 1985, *Deep Ecology: Living as if Nature Mattered*, Salt Lake City, Gibbs M. Smith.
- 2) 박진희, 장남기, 1998, "환경소양의 정의와 관련연구에 관한 분석", *환경교육*, 11(2), 한국환경교육학회, p.84
- 3) 박승규, 1998, "경관미학의 지리교육적 의미", *교육과학연구*, 12, 청주대 교육문제연구소, 185-204.
- 4) 남상준, 1999, "운영주체(학교-사회) 통합적 환경교육의 고찰", *지리·환경교육*, 7(1),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p.32.
- 5) 이민부, 박승규, 2000, "제7차 환경 교육 과정의 학교급별 내용 특성", *환경교육*, 13(2), 한국환경교육학회, 103-113.
- 6) 이민부, 박승규, 2000, *전개논문*, 103-113.
- 7) 최석진 외, 1999, 제 7차 교육과정 환경교과서 개발연구, 한국환경교육학회, p.53.
- 8) 최석진 외, 1999, 학교환경교육 내용체계화 연구, 한

국환경교육학회, p.67.

- 9) 이종문, 이민부, 1997, *환경교육*, 서울: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p.330.
- 10) 이선경, 최석진, 1998, "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생태와 환경'의 구성과 과제", *환경교육*, 11(2), 26-39.
- 11) 상계 논문, 26-39.
- 12) 남상준 외, 1999, *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 서울: 원미사, 29-86.
- 13) 남상준, 1999, "운영주체(학교-사회) 통합적 환경교육의 고찰", *지리·환경교육*, 7(1),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7-49.
- 14) 미적 장은 미적 경험이 일어나는 '상황(situation)'을 말한다. 벌린트는 미적 장을 예술 대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서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경험되는 맥락으로 정의하고 있다(A. Berleant, 1970, *The Aesthetic Field: A Phenomenology of Aesthetic Experience*, Springfield, III: Charles C. Thomas, 47. 조정송, 배정한, 1994, "환경미학과 참여개념의 구조와 문제: A. Berleant의 시론을 중심으로", *미학*, 19, p.233에서 재인용).
- 15) Norman W. Heimstra & Leslie H. McFarling, 1978, *Environmental Psychology*,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 16) 조정송, 배정한, 1994, "환경미학과 참여개념의 구조와 문제: A. Berleant의 시론을 중심으로", *미학*, 19, 225-259.
- 17) 김문환, 1994, "환경미학의 이론적 과제: 자연미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실*, 22, 271-272.
- 18) J. Dewey, 1934, *Art as Experience*, New York: Allen & Unwin, p.55.
- 19) 이수진 역, 1995, "미학과 환경", *미학*, 20, 한국미학회, 420-428.
- 20) Joy A. Palmer, 1998,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文 獻

- 교육부, 1997, 제 7차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 1997, 제 7차 교육과정, 중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교육부, 1997, 제 7차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김문환, 1994, “환경미학의 이론적 과제: 자연미를 중심으로”, 철학과 현실, 22, 271-272.
- 김일기, 이민부 외, 1997, 제 7차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연구·개발, 한국교원대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개정위원회.
- 남상준, 1995, 환경교육론, 대학사.
- 남상준 외, 1999, 환경교육의 원리와 실제, 서울: 원미사.
- 남상준, 1999, “운영주체(학교-사회) 통합적 환경교육의 고찰”, 지리·환경교육, 7(1),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27-49.
- 남상준, 2000, “초등학교 환경교육의 방향성”, 초등사회과교육, 12, 53-74.
- 박승규, 1998, “경관미학의 지리교육적 의미”, 교육과학연구, 12, 청주대 교육문제연구소
- 박진희, 장남기, 1998, “환경소양의 정의와 관련연구에 관한 분석”, 환경교육, 11(2), 한국환경교육학회, 83-101.
- 이동엽, 이선경, 장혜정, 윤여창, 1997,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환경교육 연계성 연구, 환경교육, 10(2), 한국환경교육학회, 101-120.
- 이민부, 박승규, 1998, “제 7차 중학교 ‘환경’ 교육과정과 청소년 환경교육”, 환경교육, 11(2), 한국환경교육학회, 14-25.
- 이민부, 박승규, 2000, “제7차 환경 교육 과정의 학교급별 내용 특성”, 환경교육, 13(2), 103-113.
- 이민부, 윤석희, 이혜선, 박정자, 박제윤, 1999, 환경, 중학교 교육 과정 해설(V)- 외국어(영어), 재량활동, 한문, 컴퓨터, 환경, 생활 외국어, 교육부, 257-306.
- 이선경, 최석진, 1998, “제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생태와 환경’의 구성과 과제”, 환경교육, 제 11(2), 한국환경교육학회, 26-39.
- 이수진 역, 1995, “미학과 환경”, 미학, 20, 한국미학회, 420-428.
- 조정송, 배정환, 1994, “환경미학과 참여개념의 구조와 문제: A. Berleant의 시론을 중심으로”, 미학, 19, 225-259.
- 최석진 외, 1999a, 제 7차 교육과정 환경교과서 개발 연구, (사) 한국환경교육학회.
- 최석진 외, 1999b, 학교환경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 (사) 한국환경교육학회.
- Berleant, A., 1992, *The Aesthetics of Environment*, Philadelphia: Temple Univ. Press.
- Bourassa, S., 1990, “A Paradigm for Landscape Aesthetics”, *Environment and Behavior*, 22(6), 787-812.
- Bunkse, E. W., 1981, “Humbolt and an Aesthetic Tradition in Geography”, *The Geographical Review*, 71(2).
- Devall, L. & Sessions, G., 1985, *Deep Ecology: Living as if Nature Mattered*, Salt Lake City, Gibbs M. Smith.
- Dewey, J., 1934, *Art as Experience*, NewYork: Allen & Unwin.
- Hungerford, H. R. & Volk, T. L., 1990, “Changing Learner Behavior through Environmental Educatio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1, 8-21.
- Iozzi, L. A., 1989(a), “What Research Says to the Educator-Part One: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Affective Domai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0(3), 3-9.
- Iozzi, L. A., 1989(b), “What Research Says to the Educator-Part Two: Environmental Education and the Affective Domain”, *The Journal of Environmental Education*, 20(4), 6-14.
- Joy A. Palmer, 1998, “Environmental Education in the 21st Century” Norman W. Heimstra & Leslie H. McFarling, 1978, *Environmental Psychology*,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